

문화기획 집체극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발전전망

현실의 당파성 강조한 종합예술

민중예술은 생산을 담지한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 대중의 모습을 형상화 해낸다. 물론 이는 단순한 현상적 형상화가 아닌 변혁적 전망까지 포함한 형상화일 것이다. 이를 우리는 민중적인 문화예술이라 일컫는다. 반면 부르주아지는 그들의 사상과 이념을 형상화를 통해 전파시킬 것이며 우리는 이를 부르주아 문예라 일컫는다. 이렇듯 각 계급의 문예는 그 사상과 이념을 대변하며 그 형상화 과정에서 끊임 없는 내용과 형식의 모순-투쟁-통일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 나가게 된다.

자리잡게 되고 열악한 변혁운동의 상황과 결부되면서 과거 봉건시대의 계급모순을 폭로하면서 현재의 모순관계를 암시하는 형태의 연희 행위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지배세력의 탄압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이 거세어지면 거세어질수록 민중극이 가지는 분

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담아낼수 있는 예술양식을 창조해나야 한다는 당연한 임무가 부과되게 된다. 즉 대중의 집단적 변혁의지를 형성화해낼수 있는 양식을 시급히 개발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선전·선동의 양식으로 집체극은 탄생하게 된다.

질 때다. 이때의 집체극은 신기한 구성거리 속에서 경탄과 방향없는 황홀감만을 주는 부르주아층 집체극과 다름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각 장르의 결합이라는 구성원리가 무너지고 무작위

▶집체극이란 극단들 가운데서 '시선' '영성' '해방'의 '전진' '진격'이 '집체' '합'으로 이루어진다.



심화된 계급모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 장르별 완결성 통해 전체발전 모색해야

진적 안정성이나 공동체적 신명성은 남한사회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부적당하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경험은 80년 광주이다. 80년 이전 몇몇 명망가들과 양심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소위 '민주화'운동은 광주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그 소부르주아적, 감성적 틀을 벗어나야 함을 인식하게 해준다. 80년 광주의 피의 깃발은 공동체적 신명이나 회유적 폭로로서의 현실에 대한 변혁적 반영을 할수 없다는 인식을 심화시켜 준다. 이러한 전통극의 자기형식 파괴의 또다른 결과물로 거리극 즉 상황극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집체극이 발생하게 되는 또 하나의 측면은 각 장르의 발달이다. 집체극이 각 장르의 종합된 형식이라 했을때 각 장르의 자기 완결적 구조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집체극이 각 장르에 대한 한층 높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장르의 분화·발전이 집체극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내용·형식적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적이고 단순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각 장르의 분화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게 된다. 각 장르의 독특한 언어의 획득과 다양한 형상화 방식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함에도

그럼 과연 집체극이란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으르르리한 무대에 집단으로 사람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노랫 소리가 울리는가 싶더니 멘트와 슬라이드가 비추고... 일관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집체극의 모습이 이런것이다.

집체극의 중심적인 구성 원리는 각 장르의 유기적인 결합이다. 이는 장르 혹은 매체들이 결합될 때 부분부분이 전체적 내용을 전달 하는데 대한 효과의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을 의미한다.

한성대입구 골목지하에 위치한 아리랑의 사무실은 예상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나, 현재 '우리극장'측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연극연습을 하기에는 비좁지않아 하는 느낌도 들었다.

우리가 이 글에서 살펴 보고자 하는 집체극 역시 위와같은 맥락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87년 전국 방방곡곡을 거대한 투쟁의 물결로 매워진 대중의 변혁 의지의 실체를 문예활동가들은 기존의 양식으로는 형상화해내지 못하는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전문적인 예술 활동가라면 현실의 충실한 반영과 당파성을 전진한 예술 창작으로 대중에게 잠재되어 있는 변혁 의지를 어떻게 나타내야 하고 앞으로의 변혁적 전망을 어떻게 담지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변혁 의지의 당대적이고 당파적인 내용을 파악

이러한 형식적 측면의 결합은 궁극적으로 그 내용에 의해 규정 받게 된다. 때문에 집체극을 이루는 다양한 장르가 결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이며, 관객의 역동성은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가 등의 문제가 집체극의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86년 6월, 민족운동의 대표적 배우로서 활동해오던 현 아리랑 대표인 김명준씨가 중심이 되어 창단된 아리랑은 현재 20여명의 단원들이 교락을 함께 하고있다.

이제 집체극의 장·단점을 살펴 보자. 집체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리얼리즘, 즉 당대의 당파성을 지닌 현실주의 예술이라는 원칙이 망각되어

한성대입구 골목지하에 위치한 아리랑의 사무실은 예상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나, 현재 '우리극장'측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연극연습을 하기에는 비좁지않아 하는 느낌도 들었다.

이들은 기획국, 교육국, 사업국과 함께 공연창작국을 두어 대부분의 작품을 공동창작으로

서씨, 독스삼한자루

삼복 더위가 삼날에 찍혀 웃는다 허허 서씨는 모래와 시멘트 대신 웃음을 퍼내고 있다 보다

소주 한병들이 통증이 가지지 않은 매일매일 퍼내는 웃음은 수백, 수천 삽이지만 모래알처럼 작고 가늘고 너무 멀기만 한 열참 막걸리 한사발 담배 한개비

허허 그래도 서씨가 웃는다 삼한자루로 담아올린 아내와 자식의 웃음 어느곳에서 빛나는 것 같아 15층 아파트 구석구석 웃음을 퍼낸다

이제 휘청이며 가는 저녁 슬막하게 퍼올린 웃음 선술집 한구석에 나두고 먹성좋은 자식들 위해 수박한덩이 웃음되어 서씨, 독스 삼한자루 비틀비틀 웃는다



최용찬(국문-2)

문화탐방

“한민족의 역사적 시련과 아픔을 예술적 형상으로 표현해내고 민족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연극을 해야한다”라는 예술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민족극을 이끌어온 극단 '아리랑'을 찾았다.

한성대입구 골목지하에 위치한 아리랑의 사무실은 예상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나, 현재 '우리극장'측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연극연습을 하기에는 비좁지않아 하는 느낌도 들었다. 지난 86년 6월, 민족운동의 대표적 배우로서 활동해오던 현 아리랑 대표인 김명준씨가 중심이 되어 창단된 아리랑은 현재 20여명의 단원들이 교락을 함께 하고있다. 아리랑은 86년 7월 창단공연으로 '아리랑'을 선보인 이래 '한

민족의 삶을 대변하는 극단 아리랑

춤의 흥 '장사의 꿈' '붓꽃이' '잡으세 가보세' '금수강산' '인동초' 등을 공연하며 마당극과 무대극의 새로운 정복을 시도해 왔다. 이들은 노동극에만 제한되지 않은 사회전반적인 모순들, 즉 장기수, 통일 등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어 폭넓은 연극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소화해내고 있으며, 새로이 영상국을 두어 영화, 슬라이드등의 영상매체에서 연극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인젠가는 영화제작도 하겠다는 포부를 키워나가고 있다. 연극이라는 매체에 대해 "대중을 교양·선전할 수 있는 무기"라고 설명하는 아리랑 단원



◇ 극단 아리랑은 창단 5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공연 '격정만리'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 모순 소재로 폭넓은 연기활동 발전된 관객수준 조용한 질높은 연극돼야

해에는 통일문제적 시리드물로 '절이 절아 동점야'와 '불감증'을 재공연 하였는데, 이중 '절아...'는 본고 노년극장에서 공연한 바도 있다. 이들은 기획국, 교육국, 사업국과 함께 공연창작국을 두어 대부분의 작품을 공동창작으로

고독업씨는 "연극을 하는 사람은 연극적 기량과 문예운동에 대한 실천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한층 발전한 관객대중의 문화수준에 맞는 좀더 고도화된 연극을 해내지 않으면 안될때입니다."라고 연극인의 과제를 말한다.

다. 극중극 형태로 우리나라 현대 연극사를 짚어 나갈 격정만리는 창단5주년을 맞아 아리랑의 역량이 집약되어 나타날 대대적인 기념공연이기도 하다. 연극인으로서 너무나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만난 아리랑 단원들, 그러나 무대에 올라서는 서로 호흡을 맞춰가며 완전한 만남을 추구해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극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금주 記者)

VIVA 삼미유통 advertisemen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ree people (two men and one woman) in dynamic, joyful poses, suggesting a party or celebration. Text includes '젊음의 독립국, 비바!', '오직 젊음을 위한 전문백화점 VIVA!',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IVA 백화점. A '8월 24일 OPEN' sign is also visible.